

월간 문화도시 수원

발행일 2021.10.21

발행인 김영배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인 이선옥 수원문화도시센터장

발행처 수원문화재단

3호



2021 인문도시주간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봄

‘2021 인문도시주간’, 문화도시 수원 축제로 만나다.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의 삶 속에서 인문적 상상과 실천을 탐색하는 ‘인문도시주간’을 펼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만남보다는 단절과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각자도생의 칸막이 벽이 높아질수록, 편견과 차별 그리고 혐오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다양한 삶의 무늬를 발견하고 존중하며 서로 곁을 내어주는 만남이 더 잦아야 합니다. 물리적 거리두기로 커져 버린 심리적 거리를 문화가 어떻게 좁혀 나갈지 생각이 깊어집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월든’에서 “내 집에는 세 개의 의자가 있다. 하나는 고독을 위한 것이고, 둘은 우정을 위한 것이고, 셋은 사교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그리고 문화적 삶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과 경험을 나누기 위해 의자 두셋을 마련하는 마음으로 인문도시주간을 준비했습니다. 시민 워킹그룹, 전문가, 공간 운영자, 문화기획자, 예술가,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활동가 등 문화도시 주체들이 힘을 함께 모았습니다. 만남과 마주침,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준비되었나요?

수원 시민들이 직접 만든 문화도시의 미래를 엿보다

‘인문도시주간’에 준비된 행사는 다양하지만, 한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이 주도하는 행사라는 점입니다. 문화도시 수원은 시민들이 직접 문화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인문도시주간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은 시민들이 어떻게 도시의 문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문화도시 수원의 미래의 모습과 ‘나’, 그리고 ‘내가’ 문화도시에서 말할 수 있는 역할은 없을지 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 탐색의 과정은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프로그램 소개

하이브리드

오! 인문도시 포럼	10.29 금 ~ 10.30 토 14:00~16:00	유튜브 ‘문화도시 수원’ @sw_culture
시민주도 R&D사업 씨티플레이어	9.27 월 ~ 11.21 일 *사업별 운영 일정 상이	각 사업별 상이
워킹그룹 프로그램	9.30 목 ~ 11.11 목 *프로그램별 운영 일정 상이	오프라인 프로그램별 상이 온라인 유튜브 ‘문화도시 수원’ @sw_culture
로컬 문화 콘텐츠 직거래 장터 ‘수문장’	10.30 토 ~ 10.31 일	화홍사랑채, 패터슨 커피, 방화수류정
	10.18 월 ~ 11.5 금	www.swmarket.kr
수원 공공예술 ‘도시충;동 예술충;동’	10.23 토 ~ 11.7 일	청려원갤러리 및 교동일대
	21.10 월 중 ~ 22.9.15 목	www.publicartsuwon.com

오프라인

문화도시 사용설명소	10.25 월 ~ 10.31 일	동행공간
동행공간 주간 프로그램	10.25 월 ~ 10.31 일	동행공간 (각 프로그램별 상이)
지동아트포라 입주작가 정기전	10.19 화 ~ 11.1 월	행궁길 갤러리
생활문화공간 프로그램	10.26 화 ~ 10.31 일	생활문화공간(각 프로그램별 상이)
학습공동체 공유테이블 : 활동비책	10.29 금 14:00 ~ 17:00	수원문화재단 지하 1층 회의실
문화다양성 공존테이블	10.26 화 14:00 ~ 16:00	실험목장 AGIT
	10.30 토 14:00 ~ 16:00	

온라인

인문실천 공유회	10.29 금 ~ 10.31 일 10:00~16:00	게더타운
문화공작소 체험배달	10.25 월 ~ 10.31 일	Zoom
문화도시 열린대화방	10.29 금 ~ 10.30 토 10:00~16:00	게더타운
웹툰 ‘인문도시가 뭔데’	10.25 월 ~ 10.31 일	수원문화재단 SNS

‘실천적 인문 : 인문만담’과 ‘인문적실천 : 성과공유’

이번 ‘인문도시주간’은 크게 ‘인문만담’과 ‘성과공유’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인문만담은 ‘사람의 무늬’를 뜻하는 ‘인문’을 탐구하고 발견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문만담에서는 120만의 다양한 무늬를 가진 수원시민들이 혐오와 차별 없이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문화도시를 그려 나갑니다. 대·내외적 인문적 사례들을 발견하고 포럼과 강연, 그리고 웹툰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공유합니다. 성과공유는 문화도시 수원이 이끌어온 사업의 과정과 결과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꾸려집니다. 앞서 문화도시 수원에서 이뤄졌던 다양한 시민참여 사업 및 행사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놓쳤던 분들에게는 소개를, 참여했던 분들에게는 기억을 되새겨보는 자리입니다.



온라인 프로그램을 만나는 특별한 공간, 게더타운

이번 축제의 특별한점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즘 흔히 이용하는 온라인 화상 채팅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바타를 이용해 다양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더타운은 인문도시주간을 위해 마련된 가상현실 공간입니다. 메타버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현실이 아닌 가상에 만들어진 세계를 메타버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메타버스에서 문화도시 수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문도시주간 주역들을 만나다

인문도시주간의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의 손길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뿐 아니라 기획단계부터 시민들이 참여했죠. 시민기획단 ‘나침반’의 ‘신연정’님과 웹툰작가 ‘단호리’님을 소개합니다.

문화도시 포럼과 웹툰 기획한 ‘시민기획단 나침반’

시민기획단이 뭘까요? 각 도시에는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시민들이 ‘청중’이나 ‘관객’으로 참여하곤 합니다. 시민기획단은 여기서 한단계 더 들어가 행사 자체를 기획하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시민기획단 ‘나침반’도 비슷한 맥락에서 시작됐습니다. 나침반은 지난 2015년 수원시 글로벌학습관 책임기 모임에서 시작됐습니다. 신연정 단장님은 책을 읽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자를 직접 만나 강연을 듣고 싶다는 생각에서 기획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기획단 단원들은 대부분 주부예요. 처음에는 기획에 대해 잘 몰랐었지만 그저 더 좋은 강연을 우리가 직접 듣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됐죠. 이제는 강연장을 직접 섭외하고 구성하고 또 강사를 섭외하는 것까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기획단 나침반이 인문도시주간에서 맡은 역할을 인문도시 포럼의 구성과 웹툰 스토리 구성입니다. “처음에는 포럼이 아니라 ‘웰컴 투 수원’이라는 프로젝트의 기획을 진행하게 됐어요. 당시에 저희 기획단이 성소수자나 성폭력 피해자, 이주민 등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역할을 맡게 됐어요.” 기획단은 포럼을 구성하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포럼에 참여는 해봤지만 구상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미니 강연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준비해보니 구성이 전혀 달랐어요.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을 더 써야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전에 준

비 해본적도 없었고요. 이전까지 시민이 기획하는 포럼도 거의 없었기에 길을 직접 개척해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현재 포럼의 구성을 완료하고 큐시트를 그리고 있다는 신 단장님. 이번 포럼을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가 어떤 문제와 맞서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매화마을을 통해 보여주는 주거 안정 문제라던가 성매매 집결지의 쇠락으로 막혀버린 여성들의 인권 문제, 청년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우리 도시에 있고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럼 출연자들 간의 토론을 통해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기획단은 인문도시주간과 포럼을 좀 더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웹툰 ‘나우와 어스’의 캐릭터를 길고양이 캐릭터로 꾸미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길고양이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배척당하고, 어떤 때는 귀여움을 받는 동물입니다. 또 인간에 대해 어쩌면 가장 잘 아는 동물일 수도 있고요. 이 때문에 이 길고양이 캐릭터 ‘나우’와 ‘어스’가 이번 포럼에 연사로 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는 형태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기획단은 이번 포럼과 웹툰뿐 아니라 다양한 인문도시주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멀게 느끼는 수원에 대해 좀 더 가깝게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수원과 자신을 멀게 느끼곤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요. 하지만 적극적인 관심만이라도 가지면 도시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문도시 포럼을 통해 인문이 멀리 있지 않고 일상이 인문이며 한사람 한사람이 인문이라는 것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포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다양한 목소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 ‘나우’와 ‘어스’가 함께하는 만화 속 수원 이야기 ‘나우와 어스가 간다’

이번 인문도시주간에는 수원시 인권웹툰을 그렸던 단호리 작가님의 ‘나우와 어스가 간다’가 매일 온라인을 통해 연재될 예정입니다. 노동요의 후렴구에서 나온 ‘단호리’에서 필명을 따온 작가님은 이번 웹툰을 통해 독자는 물론이고 자기 자신도 수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수원사람으로 살고는 있었지만 사실 수원이라는 도시에 대해 잘 몰랐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시민 기획단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최대한 만화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웹툰은 한 화당 총 10컷으로 구성되고, ‘나우’와 ‘어스’라는 길고양이 캐릭터가 등장할 예정입니다. 이 둘이 수원을 다니며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는 구성입니다. 단호리 작가님은 10컷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부분에서 고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기획단계에서 가이드를 자세하게 만들어줘서 작업에 어려움은 없었지만, 전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인문’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쉽게 그려야 하는지 고민이 컸습니다.”

단호리 작가님은 이번 웹툰을 통해 인문이 우리 주변의 소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우와 어스가 수원 인문 모임을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사라진 매화마을이라던가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곧 있을 인문도시주간에 단호리 작가님은 웹툰이 글보다 더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부분을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매화마을에 대한 이야기는 만들면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기록으로만 남아있는 것들을 만화를 통해서 좀더 수월하게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원에는 사라진 것들이 많아요. 그 사라진 것들에 대한 기억을 이번 웹툰을 통해 되살리면 좋겠습니다.”

1. 단호리 웹툰작가
2. 웹툰 캐릭터 ‘나우’와 ‘어스’



문화도시 파트너 워킹그룹을 만나다

워킹그룹은 ‘문화도시 파트너’로 도시가 가진 문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관찰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문도시주간에는 워킹그룹이 기획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워킹그룹은 탐조책방, 책고집, 시크릿컴퍼니 총 3개 그룹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탐조책방의 박임자님을 소개합니다.

도심, 수원에서 새를 만나는 다섯가지방법 ‘탐조 책방’



상상캠퍼스 내 마련된 탐조책방에 들어서면 곧바로 ‘탐조’라는 단어가 새를 본다는 것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책방안에는 새와 관련된 동화, 전문서적 등으로 꾸며져 있고 한쪽 책상에는 쌍안경이 놓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탐조책방의 대표이자 문화기획자인 박임자님을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탐조책방의 ‘탐조’는 새를 보는 활동을 뜻합니다. 그 안에는 새와 자연을 배려하며 관찰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고 박임자님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를 볼 때 경쟁을 해요. 때문에 번식기 사진을 찍기 위해 새에게 다가간단던가 자연을 훼손하거나 하면서까지 새를 관찰하려고 하죠. 탐조책방에서 탐조는 새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관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 대표님은 처음에는 새에 관심이 생겨 ‘탐조’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던 중 탐조문화를 더 알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탐조책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부터 문화기획을 해보기도 해서 기획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에는 ‘책방’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해 탐조책방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번 인문도시주간에 탐조책방은 ‘수원에서 새를 만나는 다섯가지 방법’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화성성곽, 수원수목원 옆 일월저수지, 하광고 소류지, 호매실 소재 아파트, 실험목장 AGIT 등 다섯 곳을 산책하며 새에 대한 이야기를 전문가를 통해 듣고 ‘탐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다양한 새 전문가들을 섭외했습니다. 이전에도 계속 해왔던 탐조 활동이 도움이 돼서 좋은 분들이 많이 참여 해주셨어요.”

입소문을 탔는지, 이번 프로그램엔 벌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참여 인원을 10명 전후로 맞추려고 했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박 대표님.

“행사를 올해로 끝낼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해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탐조를 알리고 싶은 소망입니다.” 박 대표님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에게 우리의 일상에 새가 항상 자리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라고 하면 보통 산이나 자연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곤 해요. 하지만 의외로 새는 도심안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새들이 우리와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새들에게 이기적으로 대했는지, 또 새들을 잘 모르고 있었는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박임자 탐조책방 대표
2. 탐조책방 전경
3. 탐조책방 박임자 대표님의 어머니가 직접 그린 새 그림

평소에 문화생활을 즐기는 편이신가요? 수원 문화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수원에서 개최하는 전시, 공연, 축제 행사에 즐겁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는 문광부가 발표한 2019년 지역문화 종합지수에서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화기반시설이 확충된 도시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문화생활 만족도입니다. 결국,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빛나는 지역문화 소프트웨어가 융성해져야 합니다.

문화도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문화도시 수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유한 지역문화를 진흥시켜야 합니다. 지역 문화는 다름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다양한 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매력적인 ‘문화 수원인’들의 활동을 발굴하고 널리 알릴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가 시민이 만들어가는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조명한다면, 시민들은 수원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을 쌓아 나갈 것입니다.

인문도시주간에 준비된 프로그램 중 기대하시는 행사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도시 수원’의 주인공인 시민들의 다양한 활약상을 볼 수 있는 행사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천활동 씨티플레이어’에서 추진한 프로젝트 결과들도 궁금하고 생활문화공간에서 어떤 특화 프로그램들이 운영될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참여 독려를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배우고 표현하는 문화 활동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문화향유를 통해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다양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시민 모두가 각자 좋아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서로 교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진 문화적 열망을 표출하세요. 참여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장미영 의원

도시충;동과 예술충;동, 공공예술의 새로운 방법

도시에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는 사람은 시민들입니다. 문화도시 수원의 공공예술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도시충;동의 ‘도시충동단’은 주제와 모티브를 제공하는 시민 모임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도시에서 겪은 문제, 느낌, 기분을 함께 공유하고 토론합니다. 예술충;동의 ‘기록 생산자’와 ‘흥미로운 전달자’는 예술가들입니다. 이들은 도시충동단에게 전달받은 이슈와 사건, 토론내용을 전달받아 공공예술로 만들어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도시충동단과 예술가들을 만나 도시의 어떤 문제들이 수원의 공공예술로 승화됐는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시충동단 도시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람

꿈틀협동조합의 ‘한정우’님

꿈틀협동조합은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사회적기업입니다. 한정우 대표님은 작업치료사로 비싼 가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치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 꿈틀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들이 커서 성인이 된 이후에도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식품회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우님은 이번 도시충동단 활동을 위해 자신이 꿈틀협동조합을 만들게 된 계기를 예술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작업치료사로서 처음 치료를 담당했던 6살아이가 12살 때 사고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서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 또 갈수록 높아지는 치료 비용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과 성장한 뒤에도 사회응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별받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요. 특히 한정우님은 자신의 이야기가 예술로 승화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빈곤 포르노’처럼 발달장애인들에 대해 동정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표현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원시 청년협의체 ‘황동준’님

황동준님은 대학생이면서 동시에 수원시 청년협의체의 1대 회장이기도 합니다. 수원시 청년협의체는 지난 8월 공식 출범한 단체로 수원시 내 청년들의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청년 109명이 이 단체에 소속돼 있습니다. 황동준님이 도시충동단의 역할로 밝힌 도시문제도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이 초등학교 시절 학생회장 선거에서 느꼈던 연대의 가치에 대해 전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아이들의 축제가 아닌 학부모들의 힘싸움으로 변질되면서 아이들의 연대가 없어지고 갈수록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최근 청년들은 예전과 달리 순수한 의미의 연대가 갈수록 사라지고 지나치게 현실 의존적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황동준님은 주변 친구들에게 몇 년 전에 느꼈던 열정보다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먹고사는 문제에만 고민이 더 커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회가 청년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황동준님의 생각입니다. 이전까지 청년들은 밝은 톤과 생기가 주요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만년과장처럼 찌들어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황동준님은 이같은 상황이 예술로서 긍정적으로 승화됐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수원 청년들의 암울한 현 실태를 예술로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가져오고 또 그 속에서 반전이 있는 작품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즐거운교육의 ‘최지영’님

더즐거운교육은 청소년과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용 도구나 리더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중 수원 광교공공실버주택에 입주한 이후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더즐거운교육의 대표 최지영님은 이번 도시충동단 활동에서 이 실버주택 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더즐거운교육이 있는 공공실버주택의 건너편에는 민간실버주택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노인복지관도 있죠. 처음에는 공공실버주택 입주자와 민간실버주택 입주자가 서로 어울리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두 입주자들 사이에서 벽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함께하는 프로그램에 민간실버주택 입주자가 참여하지 않기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공공실버주택 입주자들도 차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복지관에서 이같은 차별은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최지영님은 이 도시 속 갈등이 커다란 벽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자신의 이야기를 토대로 도시의 벽을 허물었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마음의 거리는 너무 멀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해소했으면 한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언어로 수원을 표현하다. ‘기록생산자’

기록생산자는 시민들의 언어를 직접 작품속에 녹여 지역의 구체적인 이슈와 장소를 매체로 보여주는 작가 그룹입니다. 이들 작가들이 시민들의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으로 담아냈는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땅도프로덕션 ‘장안공원’, ‘도시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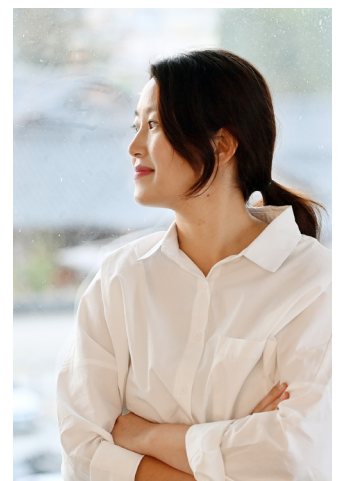


땅도프로덕션은 지난 2013년부터 수원에서 활동하게 된 영상제작그룹입니다. 류승진 땅도프로덕션 대표님은 농약의 기초장단을 맞추기 위해 되뇌는 ‘땅도 땅도 내땅이다’라는 문장에서 프로덕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땅도프로덕션은 이곳

에서 터를 잡고 TV 광고나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하고 지역사람들과 함께하는 영상을 제작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수원 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어울리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도시충동단 분들이 언급한 장안공원과 ‘노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작업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인들의 근황이나 안부를 묻는 내용이 이번 작품 제작의 모티브가 됐습니다.” 땅도프로덕션이 만든 작품은 ‘장안공원’과 ‘도시언어’ 두 가지로 류승진 대표님과 윤혁 작가님이 각각 작품을 맡아 제작했다고 합니다. 류승진 대표님은 이번 작품 ‘장안공원’이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용공간이라는 곳은 결국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만들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장안공원도 오래전에는 사람이 살고 있던 공간인데, 화성복원작업을 하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났습니다.” 류 대표님은 장안공원의 오래전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교차로 보여주기 위해서 수원 화성박물관의 아카이브를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작품인 ‘도시언어’를 제작한 윤혁 작가님은 작품에서 행궁동 소재의 가게 모습과 간판 이미지를 보여준다고 소개했습니다. 땅도프로덕션은 이번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누군가의 삶의 터전이 지금은 사라지고 우리의 공용 공간이 됐음을 알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장안공원’의 이야기는 쫓겨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미 한번 쫓겨나는 것을 지동에서 겪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에 겪은 이야기지만 장안공원은 70년대의 이야기입니다. 당시에는 더욱 힘들었겠죠. 꼭 이번 영상을 보고 뭔가를 느꼈으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상 자체를 충분히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현지윤 작가 ‘청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

현대미술작가인 현지윤 작가님은 이전부터 노인들이나 중년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해왔기에 도시충동단을 통해 전달된 주제를 소화하는 데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수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해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르신에 대한 뮤지컬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지난해에는 수원의 중년 세대를 인터뷰한 실험 다큐도 만들었죠” 현 작가님은 이번 ‘도시충;동 예술충;동’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도 익숙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새로운 작업을 하자고 마음먹었죠. “원래부터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작업을 하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게시물을 이용해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 ‘청년을 위한, 노인을 위한’은 화려한 배경 위에 다양한 문자 또는 글자 이미지를 보여주며 인터뷰 내용을 함축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 작가님의 말을 빌리자면, 마치 옥외광고처럼 보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청년들이나 노인들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바람, 삶과 밀접한 고민을 풀어내는 작업이죠. 인터뷰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개성이 담긴 이미지로 함축해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보는 것처럼 전시될 계획입니다. 터치가 가능한 화면을 전시하고 관람자가 직접 스크롤 해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매체를 이용한 것은 온라인의 익명성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익명으로 표현해줄기를 바랬습니다. 왜냐면 수원의 밝은 면 뿐만 아니라 어두운 면이나 불편하고 솔직한 자신의 감상을 많이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청년세대나 노인세대가 서로의 세대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느꼈으면 합니다. 또 저 자신도 이번 작업을 통해 수원이라는 도시에 대해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2021.
10.23.SAT—
11.07.SUN

www.publicart
suwon.com

예술충동단
왕좌게임

시민X작가 콜라보레이션

작품을 만들어내다. ‘흥미로운 전달자’

흥미로운 전달자는 시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한번 더 곱씹고 나아가 스스로 이슈를 만들어 내는 작가 그룹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작가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작품으로 만들어 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현덕 작가 ‘Sanctuary’

서현덕 작가님은 평생을 수원에서 자란 토박이입니다. 서 작가님은 조형 전공을 한 뒤 작은 소리를 채집하는 ‘사운드스케이프’ 작업을 경험하고 나서 소리를 이용한 설치작가로 발돋움 했다고 합니다. 주요 작품 중 하나는 비행장의 전투기 소음을 음악으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비행기 소리를 애니메이션 속 용의 울음소리로 느꼈다는 것에서 착안한 작품입니다. “제가 만약 외지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와닿는 작품이 아니었을 겁니다. 수원 토박이로서 비행장의 소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 작가님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노인들과 청년 사이의 세대 간 벽에 대해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새로운 사건을 겪으면서 작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작업은 최근 저와 수원 교동의 한 주차장 주인인 노인과 갈등이 생겼는데, 둘 사이에 벽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Sanctuary’에 담긴 이야기는 노인의 인생 이야기와 소위 말하는 ‘꼰대’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요즘 세대들에 대한 불만과 6.25시기에 겪었던 어려움 등 젊은 세대들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스피커로 흘러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8살 아이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겁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는 조금 어눌하거나 문맥이 맞지 않고, 이상해도 자세히 들으려고 노력하곤 합니다. 하지만 노인들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조금만 나와 맞지면 듣지 않으려고 하죠. 그 때문에 노인의 이야기를 아이들의 목소리로 들려주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작품은 아이들이 말하는 높이 정도에 설치됩니다. 목소리도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작게 나옵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똑바로 살라거나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이웃들을 예술을 통해 알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술이 스며들며 새로운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웁쓰양 작가 ‘협동운동’

몇 년전, 가수 크러쉬가 우승을 하면서 대중들에게 크게 알려진 ‘멍때리기 대회’. 이 대회의 기획자인 ‘웁쓰양’ 작가님도 수원공공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웁쓰양님은 참여형 퍼포먼스와 설치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공공예술 프로젝트 같은 형태는 처음 겪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시민참여형 퍼포먼스도 해봤지만 보통 직접 장소와 시민을 (작가가) 섭외하고 진행하곤 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 처럼 (제가 아닌) 아예 다른 사람의 시선과 생각을 바탕으로 수원이라는 도시를 상상하고 예측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웁쓰양님은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원과도 다양한 인연으로 묶여 있다고 합니다. 2015년 멍때리기 대회를 열었던 곳도 수원이기도 했습니다. “수원시와 함께 했던 대회였구요. 이후에도 광고호수공원에서 참여형 퍼포먼스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수원이라는 도시를 더 깊게 알게 됐습니다.” 웁쓰양 작가님은 시민들의 시선에서 바라본 다양한 수원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도시충동단 시민의 이야기 중 도시소음지도가 아주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보통 도시라고 하면 사람과 공간을 떠올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소음’이라는 것으로 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이 흥미로웠어요.” 이처럼 다양한 시민들의 시선을 모아 만들어 지고 있는 작품이 ‘협동운동’이라는 작품입니다. 웁쓰양 작가님은 이 작품을 행궁에 있는 헬스장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리서치 중에 이곳에 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인터뷰 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죠. 이처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협동운동’은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된 작품으로, 한사람의 운동성이 세사람에게 전달되며 함께 운동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관객들이 따라 할 수 있게 만든 작품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혼자 하는 일들이 많아진 시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혼자’에 지겨움을 느끼고 ‘같이’하고 싶어합니다. 전시를 진행하는 헬스장은 ‘혼자’ 운동하는 곳인데, ‘협동운동’을 통해 함께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웁쓰양 작가님은 이번 작품을 통해 ‘스킨십’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번 작품은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5개 정도 되는 운동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이 운동을 하는지 설명도 함께 할 예정이고요.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따라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